2023년 9월 8일 수정 접수

서식 2-2 입후보 소견서

대한지질학회 제42대 회장후보로 선정된 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이 입후보 소견서를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 및 전자투표 시스템에 공지함을 동의합니다.

2023년 8월 4일

후보자 성명 : 김 영 석 (서명)

존경하는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지질학의 역사상 가장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대 회장님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제42대 대한지질학회 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기에 저는 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부딪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짐을 제가 지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짐을 지질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전하게 나르려고 합니다.

내년 8월이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질학자가 꿈꾸어 왔고, 저희 모두가 8년 넘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준비했던 세계지질과학총회(IGC)를 드디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MICE 관광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한지질학회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부산시와 함께 IGC 2024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착실히 준비해오고 있지만, 총회가 가까워질수록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학회장이 된다면 첫 번째의 임무는 IGC 2024가 IGC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8월까지는 대한지질학회의 이사회와 사무국의 모든 조직을 IGC 2024에 맞춰서 운영하고, 조직위원회와 같이 협력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성공적인 학회준비와 개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지질학회 회원 모두가 동참하여 그 성공을 같이 누리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지질학의 발전과 도약뿐만 아니라 지질 후속세대에게 원대한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질관련 대표학회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지질학회 운영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의 구분이 따로 없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질학은 다소 폐쇄적인 운영과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IGC 2024를 통해 형성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최대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질학이 국제무대로 나아가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일본과만 이뤄지고 있는 학회 차원의 교류를 순차적으로 미국, 중국, 대만, 인도, 몽골,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우주행성지질, CCS 사업, 기후변화, 지질재해, 지열발전 등 다양한 지질학적 사회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차세대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을 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 관해 연구하는 지질학자입니다. 아직 이 지구를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지구를 떠나 외계행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바로 지질학자인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지질학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칭 '미래지질정책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회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연구용역사업 유치 등 학회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새로 마련한 용역지침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되, 연구 중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고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를 통해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자에게는 '우수연구자상'을 시상하여 그 노력과 기여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차세대 지질학도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질학의 미래는 젊은 지질학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질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지질학을 선택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지질과학관련학과 연합필드 캠프를 더욱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지질탐사 프로그램, 지질관련학과의 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구과학교사들을 위한 방학 연수, 그리고 지질학 홍보의 최전선에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들을 위한 연수 등을 마련하여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질학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하신 지질학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회가 기성세대와 차세대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과 단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전국 지질관련학과를 통해 배출된 우수 석박사학위 논문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회운영에서 학벌과 인맥을 배제하고 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회에서 추천하거나 수여하는 모든 상이 공정하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학회 내에 '상벌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각 상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실적정보를 공정하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나 불미스러운 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이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질학회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 등의 인사(입사, 승급심사)에 있어 지질학회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등재학술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을 설득하여 지질학회지가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쇄본 학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수를 제외하고는 파일형식으로 자유롭게 내려받아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의견수렴을 통해 학회의 규모에 맞게 이사 수를 늘리고 세분화하고자 합니다(국제교류, 홍보, 정책개발, 교육, 대외협력, IT 등). 이를 위해서는 규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더 많은 회원이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의 규모에 비하면 이사의 수가 적고 일이 일부 이사들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이슈와 많은 장기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학회가 더욱 원만하게 운영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사회의 운영방식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의 이사회는 너무 많은 안건으로 진정한 논의와 결정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많은 이사님의 소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자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는 가능한 학회운영에 많은 일반회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이나 회장단만을 통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사안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를 운영하여 지질학회가 모든 회원의 것이 되고, 일반회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회운영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로회원들께서 건의하신 신년인사회를 간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중요한 지질사이트를 발굴하고 학회 이름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지질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질학 역사상 가장 큰 행사인 IGC 2024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지질학회의 혁신을 위해 위에 제시한 공약을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통해 제가 지질학을 사랑하는 것처럼 회원님들도 지질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지질학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학회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2대 대한지질학회 회장 입후보자 김영석 드림